

## 57 클린룸 청소작업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

성별	여성	나이	57세	직종	청소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는 2013년 2월 18일 □사업장에 채용되어 원청인 ○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다. 2014년 8월 11일 대학병원에서 후각소실로 진단 받았고, 청소시 사용한 세척제에 의해 후각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요양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### 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는 2013년 2월 18일에 입사하여 파견근로자로 2014년 5월 19일까지 청소업무를 하였다. 근로자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, 저녁시간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주어져서 근무시간 중 10시와 15시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진다. 출근하면 탈의실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탈의실을 빗자루, 걸레로 30~40분정도 일반청소 하듯이 한 후 청정실 내로 들어간다. 생산현장에는 먼지가 있으면 불량이 발생되므로 옥양목 같은 천이 부착된 대걸레로 닦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. 1층 작업장을 담당하였는데 인쇄시 사용된 잉크가 바닥에 많이 묻었고 그 것을 아논(시클로헥사논)을 사용해서 닦았다.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전 공정에서 시클로헥사논이 측정되었고 근로자 진술을 고려할 때 작업장 내에서 시클로헥사논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.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할 때 노출시간 5분 동안의 시클로헥사논 농도는 15 ppm 수준으로 일 20여회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질환

### 4 유해인자

- 화학적요인(시클로헥사논)

## 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3년 2월 18일 □사업장에 채용되어 청소업무를 하였다. 2013년 9월경부터 음식조리를 하다가 몇 개의 냄비를 태워버리는 등 후각기능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2014년 8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으며, 이후 시행한 후각기능 검사(KVSS) 상 후각 인지 기능이 거의 없는 무후각증을 진단 받았다. 근로자는 특별한 기저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다.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고 2013년 7월 건강상담 결과 저혈압(혈압 80/60) 외 특이사항 없었고 키는 154cm 몸무게 47kg로 정상체중상태로 확인되었다.

## 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2013년에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클린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,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,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고 문헌보고가 있다. 근로자가 클린룸 내 청소업무를 하면서 시클로헥사논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, 확산모델을 이용하였을 때 노출시간 5분 동안의 공기중 시클로헥사논 농도는 15ppm수준으로 20여회/일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, 급성으로 후각소실을 일으키기는 낮은 농도이다. 따라서 근로자의 양측 후각소실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. 끝.